

유럽을 매혹시킨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유니(YOUNEE)

독일 언론에서 'Free Classic And Jazz'라는 장르를 개척한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아티스트'라는 극찬을 받으며 독일 클래식과 재즈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유니. 데뷔 앨범 <유겐트슈틸>과 새 앨범 <마이 피아노> 모두 독일 음반 차트 1위에 오르며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에디터 조연정 포토그래퍼 이나영

예원학교, 서울예고, 연세대 기악과를 거쳐 정통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피아니스트 유니는 대학 시절인 2001년 제13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키스피아노(Key's Piano)로 두 장의 앨범을 내며 작곡가,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나는 가수다>에 출연, 가수 윤도현의 '나 항상 그대를' 무대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영국에 진출해 영어로 만든 팝 재즈 앨범 <True to You>를 발매하며 런던의 유명한 재즈 클럽인 피자 익스프레스 클럽(Pizza Express Jazz Club), 606, 보텍스(Vortex), 스테이블스(Stables), 그리고 영국 록의 본가인 100클럽(100 Club) 등에서 투어를 했다. 스타인웨이 페스티벌(Steinway Festival), BBC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독일에서 클래식과 재즈, 팝, 록 등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피아노 솔로 앨범 <유겐트슈틸(Jugendstil)>과 <마이 피아노(My Piano)>를 발매하며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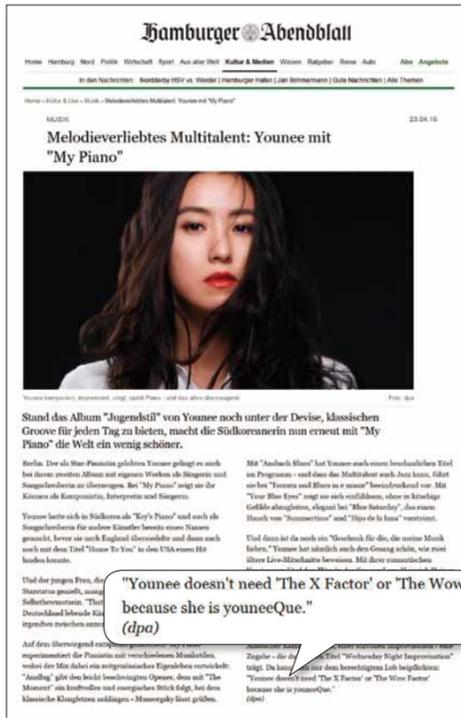


“FREE CLASSIC AND JAZZ”

Profile

곽유니

- 2001년 제13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금상
- 2006년 키스피아노 1집 앨범 <愛>
- 2007년 키스피아노 2집 앨범 <French Kiss>
- 2008년 첫 해외 앨범 <True to You>
- 2014년 독일 데뷔 앨범 <Jugendstil>
- 2016년 독일 두 번째 앨범 <My Piano>



유니에게 X factor나 Wow factor는 필요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 독일 dpa통신에 실린 유니 관련 기사 중



베를린의 스튜디오에서 녹음 후 마스터링 작업 중이다.



독일 공영 텔레비전 ZDF의 아침 뉴스 토크쇼인 (모르겐매거진(Morgenmagazin))에 출연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유럽으로 떠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에서 키스피아노로 활동하며 직접 작사·작곡한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늘 새로운 도전을 꿈꿨다. 음악적으로 항상 목말랐다고나 할까? 그런데 두 번째 앨범을 내고 활동하던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과 국내에서 같이 공연을 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직접 제작한 음반으로 런던 재즈 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뮤지션들과 함께 영국 전역에서 투어를 했다. BBC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음악적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가 생겨 모든 것을 접어두고 새로운 음악 세계를 향한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발표한 'Home to You'라는 곡이 미국 라디오 싱글 차트에서 34위를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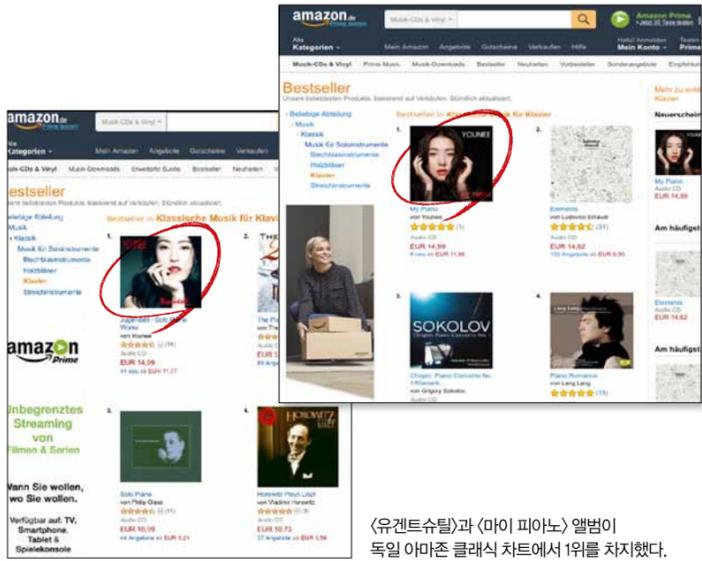
한국에는 오랜만에 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독일에서 2014년 데뷔 앨범 <유겐트슈틸>을 발매한 후 솔레스비그 - 홀슈타인 페스티벌, 모젤 페스티벌 등 클래식 뮤직 페스티벌과 단독 공연 등 많은 공연을 했다. 틈틈이 다큐멘터리 영화음악 작업도 하고, 독일 TV 드라마 음악 작업했다. 그리고 올해 4월 신보 <마이 피아노>를 발매해 홍보 활동을 하며 바쁘게 지냈다.

독일에서는 언제부터 활동했나?

한창 영국에서 활동할 때 라이브 공연을 본 독일의 매니지먼트사에서 직접 연락을 해왔다. 클래식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내 음악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거라고 했다. 그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내 음악이 독일과 유럽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독일은 세계 음반 시장에서 규모가 큰 시장으로 손꼽힌다. 아티스트와 음악을 아끼며, 아직도 많은 사람이 CD나 LP를 구입하고, 평론도 읽는다. 또 새로운 시도나 문화에 대해서도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독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이다. 지금 조스 스톤이나 그레고리 포터 등 좋은 뮤지션이 소속된 독일의 레코드 레이블인 멤브레인 (Membrain)과 실에 네가드, 아인 아우디, 안 가바렉, 토트 구스타브센 등이 소속된 ECM, 유럽의 재즈 뮤지션이 소속되어 있는 공연 기획사 소니ATB(Sony ATV) 등과 일하고 있다.



<유겐트슈틸>과 <마이 피아노> 앨범이 독일 아마존 클래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독일에서 데뷔 앨범 <유겐트슈틸>이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떤 앨범인가?

2014년 독일에서 데뷔 앨범 <유겐트슈틸>을 발매했다.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바흐 등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멋지고 인상적인 부분을 응용해 영감의 재료로 사용했다. 여기에 재즈, 팝, 록 등 모든 장르가 섞인 듯한 즉흥연주를 해 나만의 스타일로 만든 피아노 솔로 앨범이다. 듣다 보면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곡은 새롭게 연주한 곡도 있다.

'유겐트슈틸'은 19세기 말에 나타난 문화 사조로, 예술이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클래식을 편안하게 즐기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타이틀로 정했다. 또 하나는 '유겐트슈틸'을 영어로 직역하면 'Young Style'인데, 클래식을 젊은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새로 나온 두 번째 앨범 <마이 피아노>도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지 반응은 어땠나?

독일 음반 사이트의 클래식 차트, 피아노 음반 차트, 크로스오버 차트에서 1위를 했다. 클래식만이 아닌 다양한 차트에서 모두 1위를 한 것이다. 두 앨범 커버가 모두 차트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니 신기했다. 순위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건 내가 제시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에 대해 권위 있는 잡지의 간간한 저널리스트들이 나의 음악과 의도를 정확히 알아주고 좋은 평을 쓴 것을 보았을 때다.

또 내 음반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차에서 들으며 다닌다는 독일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기뻐다. 클래식 팬, 재즈 팬, 그리고 어린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공연에 오셔서 많이 응원 해주신다. 내 음악이 새로운 장르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는데, 클래식 라디오 채널, 재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브람스, 베토벤 교향곡 다음에 내 곡이 소개되어 매우 기뻐다.

녹음할 때나 공연할 때에도 즉흥연주를 하는가?

이번에 나온 두 번째 앨범을 녹음할 때도 즉흥연주로 만들었다. 베를린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는데, 스튜디오 갈 때 멜로디나 곡에 대한 구상을 하긴 했지만 막상 녹음실에 가서는 그때의 느낌으로 즉흥연주를 했다. 그날 그 순간을 소리로 캡처해서 연주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곡을 거의 한 번에 녹음했다. 공연할 때는 앨범에 수록된 곡을 연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녹음한 것을 한 음 한 음 들어가며 악보를 다시 그리곤 한다. 하지만 테마 곡을 제외하고 다른 곡들은 자유롭게 즉흥연주하기 때문에 청중은 매번 같은 곡을 다른 버전으로 듣는 셈이다.



유니의 데뷔 앨범 <유겐트슈틸>은 스타일의 독특함 때문에 독일 공영방송 ARD, ZDF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독일의 클래식 라디오인 NRD, SR, BR 등 많은 채널에서도 방송되었다. 앨범 수록곡 중 한 곡은 독일의 유명 TV 드라마에 삽입되기도 하였다.

얼마 전 나온 <마이 피아노>는 어떤 앨범인가?

열한 곡의 피아노 자작곡은 물론 공연 실황을 담은 보너스 CD로 구성했다. 이번 앨범도 데뷔 앨범과 마찬가지로 전곡을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직접 하며 나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쏟아부었다. 독일의 홈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 녹음 버튼이 항상 'on' 상태였다. 피아노에 앉으면 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즉흥연주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좋은 곡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부 피아노곡이지만 멜로디가 노래하는 듯한 발라드곡, 토카타 형식으로 작곡해 빠른 연타음으로 테크닉을 요구하는 클래식 곡도 있다. 이번 앨범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Tocatta And Blues in E Minor'라는 곡이다. 클래식의 토카타 형식과 블루스 록의 느낌, 그리고 즉흥연주가 잘 어우러진 곡이다. 자주 가는 독일의 작은 도시인 안스바흐(Ansbach)에서의 단상을 클래식컬한 블루스로 작곡한 곡도 있다. 보너스 앨범에는 라이브 무대에서 연주한 노래곡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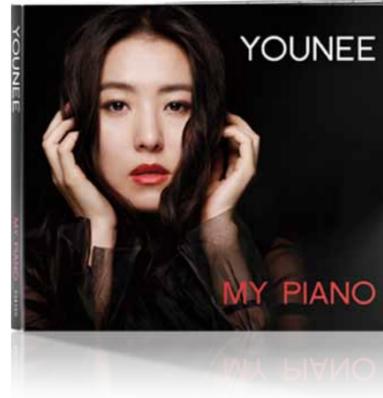
본인의 음악 장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Free Classic And Jazz'이다. 사실 나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즉흥연주를 하지만, 내 음악 안에 클래식, 재즈, 팝, 록, 블루스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일반적으로 크로스오버를 떠올리는 분도 많다. 하지만 독일 언론에서는 내 음악과 연주 방식이 이전의 크로스오버 장르와는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도대체 무슨 장르라고 표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웃음)

그러다가 이번에 새 앨범 <마이 피아노>가 나오자 독일 신문에서 내 음악을 'Free Classic And Jazz'라는 새로운 장르라고 표현하며 크게 보도했다. 이번 앨범이 즉흥연주로 이루어졌고 장르의 경계가 없는 새로운 스타일로 작곡된 순수 창작곡이었기 때문이다.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유겐트슈틸 스타일로 특별 제작한 자일러 그랜드피아노로 독일 TV 방송에서 연주하는 모습.



“<마이 피아노>는 '나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나만의 음악을 보여주는 앨범이다. 그 때문에 음향에 신경을 많이 썼다. 피아노 음색도 중요하지만 그 음색을 어떻게 녹음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내가 피아노 치면서 듣는 음향을 음반을 듣는 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다. 피아노를 칠 때 오른손이 오른쪽, 왼손이 왼쪽으로 들리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들린다. 그래서 녹음할 때도 내가 듣는 방향과 시점에 맞췄다. 그 결과 훨씬 가깝고 파워풀한 사운드가 난다.”

'유니만의 스타일'이라는 것인가?

어릴 적부터 경계가 없는 자유로운 음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예전 음악을 들으면서 새로운 음악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위대한 작곡가들도 그 이전의 음악을 듣고 배우면서 자신만의 명곡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나도 존경하는 작곡가의 곡을 듣고 배우면서 '유니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고 있다. 단순히 장르를 접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다양한 음악이나 요소, 그리고 정신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나만의 음악을 떠올리는 것이다.



“유니는 클래식, 재즈, 팝, 록 등 모든 장르의 벽을 무너뜨렸다.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가 클래식에 재즈를 더하는 시도를 해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정글 속에서 혼란을 겪었는가. 유니는 지금까지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 독일 신문 <킬러 나흐리히텐>의 유니 관련 기사 중

본인만을 위한 그랜드피아노를 제작했다고 들었다

피아노로 곡을 만들고 공연하는 나로서는 피아노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독일의 자일러라는 피아노 브랜드에서 나를 위한 그랜드피아노를 만들어줬다. 작년에는 시간 날 때마다 공장에 가서 피아노 제작 과정을 함께 했다. 자일러의 피아노 테크니션과 함께 피아노의 해머, 페달, 건반의 매커니즘 등을 논의하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색에 맞는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피아노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피아노로 음반 구상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다.

앨범 작업에 공연까지, 앞으로의 일정은?

올 해 나온 새 앨범 <마이 피아노> 홍보를 위한 독일 TV와 라디오 방송 활동과 함께 베토벤 페스티벌, 우먼 인 재즈 페스티벌 등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포함한 독일 투어 일정이 오는 8월 말부터 내년 11월까지 잡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사실 지금은 독일에서의 투어 일정만으로도 바빠하다. 당장 한국 활동을 계획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으니 SNS로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앨범 소식이나 활동 소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www.younee.com
www.facebook.com/younheemusic
www.youtube.com/younheemusic

※ 유니의 <유겐트슈틸>, <마이 피아노> 앨범은 대치동에 위치한 마리아칼라스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58-4588